섬유, 중미 8개국과 상생협력 체결

국내 섬유기업들이 중미 8개국과 상생협력을 약속했다.
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6월29일 파나마시티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중미통합체제(SICA)와 섬유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했다.
한국과 SICA의 섬유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, 통상이슈 관련정보 교환, 시장조사단 및 무역사절단 상호교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.
파나마 경제사절단이 체결한 MOU 가운데 과테말라, 온두라스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 등 중미 8개국을 포괄하는 경제통합체제인 SICA와 체결한 유일한 양해각서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MOU로 평가되고 있다.
SICA의 섬유산업은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, 저렴한 인건비 장점이 있으며, 한국은 SICA의 주요 섬유 투자국으로 현재 약 180개 국내 섬유기업이 진출해 있어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.
섬유산업협회는 MOU의 후속조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양국 섬유산업간 실질적인 교류 및 교역 증진을 유도하고, 협력채널을 중미지역에 수출 · 투자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10/7/12>